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clas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코로나바이러스로 실업률은 높고 경제는 침체일로인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1백만불 이하의 집을 찾기 쉽지 않은 보스톤 교외 럭셔리한 한 주택에 세일 패널이 붙어있다

## 보스톤 주택 구매 광풍 지난달 집값 14% 폭등

미 전역에서 신규주택 가격 폭등 바람, 매사추세츠서도 주거용 주택보다, 휴가용 주택 상승비율 높아 이분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주 내 전역과 그레이터 보스톤 집값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두자리 숫자로 폭등하면서 매사추세츠 주택시장이 8월 뜨겁게 달

아올랐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요 증가와 부동산 매물 공급의 축소로 인해 단독 주택가격

은 14%가 상승했다. 보스톤 소재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위렌그룹의 집계에 따르면 보스톤 지역의 평균 단독 주택가격은 \$480,000 이었으며 콘도 또한 5.9% 상승한 \$425,000이 었다.

이 같은 주택 가격 상승은 부동산 매물의 고갈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레이터 보스톤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그

## 매사추세츠 무료 코로나 검사 18타운으로 확대

브락턴, 첼시, 에버렛, 폴리버, 프렐링햄 등 누구나 증상 없어도 코로나 검사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이면 누구나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스탑더스프레드” 프로그램이 10월 31일까지 18개 타운으로 확대된다.

주정부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무료 검사가 가능한 18개 타운은 브락턴, 첼시, 에버렛, 폴리버, 프렐링햄, 홀요크, 로렌스, 린, 말보로, 멧두은, 뉴베드포드, 랜들프, 리버어, 셸턴, 서거스, 스프링필드, 윈드라프, 그리고 우스터 이다.

주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프로그램인 스톱더스프레드 프로그램은 주 평균 양성확진율보다 높은 매사추세츠 타운들을 중심으로 타겟화 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제어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다.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21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 한인회 "코로나 극복 한겨레 걷기 한마당"

##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가족 및 그룹 연못가 걷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석)는 코로나19 극복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10시 우번에 위치한 혼폰드(Horn Pond)에서 “코로나 극복 한겨레 걷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재외동포재단, 총영사관, 그리고 보스톤 정관장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구글링크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아 매사추세츠 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가족단위 또는 그룹별로 출발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6피트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도착 후 린치 초등학교 주차장(Lynch elementary school)에 마련될 본부석에 출발을 신청해야 한다.

행사장인 혼폰드는 약 2.4마일 코스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한인회는 참가 가족 또는 그룹별로 정관장 홍삼원 골드 1세트를 선물로 증정하며 생생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촬영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장우석 회장은 “당초, 한 3개월이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는 기대가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앞으로도 1~2년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곧 겨울이 되면 2020년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희망찬 2021년을 기대하며, 뉴노멀에 맞춰 즐겁고 기쁜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참가신청은 가족 및 그룹 대표 한 사람이 구글링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참가자들은 린치초등학교 주차장에 있는 본부석을 방문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masskorean@gmail.com](mailto:masskorean@gmail.com)로 할 수 있다.

참가 신청 구글 링크 : <https://forms.gle/KQKdV8PqqfMp2FYTA>

모이는 곳 : Horn Pond 바로 옆 본부석 Lynch elementary school 주차장 (10 brantwood rd, Winchester ma 01890)

<https://goo.gl/maps/PncxmqNsK8E7RibT8>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평통 고정욱 작가 강연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에서는 지난 9월 12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줌을 통해 한국동화작가 고정욱씨의 ‘통일시대 이후 더불어 살아가기’ 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고정욱 작가는 장애인으로 자신이 더불어 살아오는 과정을 나누고,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위인들이 미국동포였으며, 동포들의 조그마한 꿈들이 모여서 대한독립을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사는 차

세대 그룹에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는 꿈을 모아 통일을 이루고 북녘 동포들과 더불어 남과 북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연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강연회는 미주뿐만 아니라 하노이 협의회, 스웨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하였으며 약 60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는 “앞으로도 차세대 학생들을 위한 강연과 동포들을 위한 통일 아카데미 강좌를 준비하고 있으니 뜻있는 동포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린다” 고 전했다.

# 미가지 않고 듣는 로드아일랜드 교통포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주립대학교 소속 로드아일랜드교통연구소(소장 이강원 교수)는 제 33회 교통포럼을 10월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올해 교통포럼은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교통 시스템, 내구성있는 하부구조”란 제목으로 개최

되며 메릴랜드 대학의 찰스 스와츠 교수가 기조연사로 강연한다.

매년 열리지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비대면 포럼을 진행함에 따라 로드아일랜드를 방문하지 않고 이 포럼에 참가할 수 있다.

포럼은 일반에게 개방되며 링크를 방문해 등록이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http://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mailto:Steven@stevenkimlaw.com)

# 현대 음악가들의 <뉴 뮤직 심포지엄>

10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3년부터 보스톤을 기반으로 한국 문화와 예술가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보스톤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가 온라인 행사를 오는 10월 10일(토)부터 6주 동안 진행한다.

<뉴 뮤직 심포지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번 행사는 미국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참여하여 청중들에게 자신의 작품과 연주를 소개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현재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작곡가 김택수 교수가 기획과 진행을 맡았고, 작곡가 박주원(웨인 주립대학교), 작곡가 안진(UC 버클리), 피아니스트 장지혜(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작곡가 도널드 위맥(하와이 대학교), 작곡가 이윤지(버클리 음대),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서주리(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각 한 번씩 강연을 맡았다.

음악 전공자나 연주자 외에도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음악가들의 마인드에는 무엇이 있는가” 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심포지움은 영어로 진행된다.

첫 날인 10월 10일(토)에는 디트로이트에서 작곡가 및 연주자로 활동하는 박주원씨가 강의한다. 보스톤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세 개의 솔로 앨범을 출시했으며 <컴퓨터 뮤직 저널>



<일렉트로닉 뮤지션 매거진>, <컬리지 뮤직 심포지엄>에 작품과 연구가 소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전자음악 앙상블 EMEWS와 함께 한 프로젝트로 나이트 아트 펠로우십(Knight Arts Fellowship)을 받았다. 현재 웨인 주립대학교에서 전자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심포지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0월 10일(토) 오후 7시(동부 시간)에 맞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https://SDSU.zoom.us/j/3049508602>). 약 1시간 정도의 강의 후 질의 및 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자세한 정보는 [kcsboston.org](http://kcsboston.org)에서 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정진택 고려대 총장 미주 교우와의 화상 간담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 구자열 교우회장(LS 그룹 회장) 그리고 미주 교우와의 화상 간담회가 9월 14일 저녁 9시에 개최되었다.

송학기 대외협력 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 한문수 대외 협력 담당 고문(경제 83), 김명근 전임 회장(건축 91), 그리고 올해 가을부터 임기가 시작된 신임 회장 박성철 교우(노문 93)가 참석했다.

정진택 총장, 구자열 교우회장, 그리고 미주지역 교우회장단의 간단한 상견례 후 COVID-19으로 인해 각 교우회의 교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이로 인한 교우 커뮤니티의 운영 및 미래 방향을 논의하며 두시간에 걸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 되었다. 내년 6월 워싱턴 DC에서 있을 예정인 미주 교우 총연합회 모임에 대한 소개와 일정도 공유되었다.

한문수 고문은 뉴잉글랜드 교우회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약 50-70명의 교우들이 일년에 세차례 정기 모임을 갖고 있으며 영타이거즈(2000년 이후 학번)와 와일드 타이거즈(2000년 이전 학번)들이 소그룹으로 종종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도 전하였다.

또한 보스톤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 글학교 행사, 독도 에세이, 수학 경시대회, 음악회 후원 등과 교우 자녀 장학금 모금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정진택 총장

은 이번 COVID-19 사태가 진정되면 꼭 보스톤을 방문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

한편, 워싱턴 DC 지부는 윤흥노 교우(의학 64)가 은퇴자금을 1년 \$300,000씩 3년에 걸쳐 총 \$900,000 고려대 국제재단에 기부한 소식을 전해 감동을 주었다.

정진택 총장은 4차 산업과 신기술의 미래를 준비하며 신설되는 학과들을 소개했다. 또한 영국 대학평가기관 Quacquarelli Symonds (QS)에서 실시하는 2020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고려대가 69위를 차지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대가 국내 종합 사립대 중에서 6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차지했고 아시아 사립대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며 고려대가 2030년 까지는 50위권에 들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고대 교우회 문의는 박성철 (617-999-9765, [spark32@gmail.com](mailto:spark32@gmail.com)) 총무 김민용 (857-777-6604, [mkim2@gsd.harvard.edu](mailto:mkim2@gsd.harvard.edu)) 에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추석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행사기간: 9/4(금) ~ 10/4(일)

요즘이니까  
면역력  
추석이니까  
정관장

요즘처럼 면역력이 소중한 때가 없습니다.  
추석처럼 정관장이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영업시간안내**  
10:30am - 6pm  
문자 : 312-493-6677  
이메일 : [kgcboston@gmail.com](mailto:kgcboston@gmail.com)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3+1**  
자녀제품 1박스 구입시  
10포 추가 증정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1박스 증정**

**최고의 홍삼제품으로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원료 관리 단계부터 제조, 제품의 완성 단계까지 8년의 시간동안 29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의 안정성 검사를 7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 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팬데믹이 휩쓸고 있는 뉴베리 스트리트, 빈 상점 곳곳에

## 고가의 렌트비 감당 어려운 상점들 폐업 선택 다른 지역보다 폐업 사업체 훨씬 많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보스톤 내 가장 눈에 띄게 많은 사업체들이 폐업한 곳은 뉴베리 스트리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헤럴드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보스톤의 패션과 고가의 명품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뉴베리 스트리트에는 무려 55개의 상점에 비어있

다.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영업정지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주소다.

뉴베리 스트리트는 보스톤 주민은 물론 관광객 누구나 아는 쇼핑의 거리였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과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 됐다. 뉴베리의 15%의 상점과 사무실은 비어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블록에는

“리스 가능” 사인이 들어서 있다. 부동산 업체 CBRE에 따르면 2020년 4, 5, 6월은 2009년 재정위기 이래 최대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

7월 브룩 브라더스는 파산하면서 보스톤의 플래그십 상점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유명 상표중 뉴베리 스트리트를 떠난 곳은 브룩브라더스 뿐만 아니다.

뉴베리 스트리트에서 여성복 상점 바블스앤 레이스에서 일하는 지아나 드비어씨는 “거리를 보면 텅 비어 있다. 걸어다녀 보아도 문을 닫은

곳이 많다.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고 보스톤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비컨힐의 크리시 부티크와 뉴베리 스트리트의 워트니+윈스턴을 공동 운영했던 레베카 홀씨는 팬데믹 2달 만인 5월에 뉴베리 상점을 폐점했다. 다른 두 곳의 상점들을 살리기 위해 8년 전 문을 연 상점을 문을 닫은 것이다.

홀씨는 “나와 동업자는 아주 순박했다. 2주만 있으면 바이러스와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끝나면 문을 다시 열 것이라 생각했었다” 고 회상했다.

백베이 협회 회장 맥 맨지어-코헨씨는 “지금은 이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 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팬스기빙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 최대의 소매상점들의 매출 기간인 크리스마스 연휴의 매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예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간직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봄과 여름이 오지 않겠는가?” 라고 그는 되물었다.

## 메인주 매사추세츠 여행객 제한 해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메인 제닛 밀스 주지사는 9월 23일 매사추세츠 여행객들의 의무적인 14일 자가격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메인 주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센터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수를 분석한 결과 매사추세츠주가 뉴욕, 뉴저지, 그리고 커네티컷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는 것을 판단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메인을 방문시 커네티컷, 뉴욕, 뉴저지, 뉴햄프셔 그리고 버몬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격리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또한 메인 주민들이 매사추세츠 방문 후 복귀했을 때도 격리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메인 주민들은 매스주 H마트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단 로드아일랜드 주민들은 여전히 격리를 하거나 음성판정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보스톤 내 가장 눈에 띄게 많은 사업체들이 폐업한 곳은 뉴베리 스트리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서울 유명호텔의 **중화요리 Chef** 를  
초빙하여 뛰어난 맛으로 보답합니다.

**깊은맛의 국밥은**  
**오랜 향수를 달래줍니다.**

**대표메뉴**

• 순대국밥	• 짜장면/짬뽕
• 돼지고국밥	• 탕수육/깐풍기
• 소고기국밥	• 양장피/팔보채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  
**(구) 북경 in Allston**

# MA 공립학교 학생 중저소득층 PEBT 추가 지원

## 팬데믹 EBT(P-EBT) 카드 9월 말부터 추가 지급 하루당 \$5.86 기존의 P-EBT카드에 입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중저소득층 자녀들을 둔 가정은 지난 봄에 이어 두번째 P-EBT(팬데믹 EBT)카드를 받게 된다.

P-EBT카드는 미 농무부의 미학교점심프로그램(NSLP)U에 가입하고 있는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며 이번 9월 30일부터 배포가 시작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9월분 점심에 해당하는 4천만불(\$40million)을 승인 받아 배포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봄 중저소득층 가족과 평균소득이 비교적 낮은

학군 지역 전체 학생을 포함해 약 52만2천명의 학생들이 이번 혜택을 받았다. 3월에서 6월까지 하루당 5.7달러로 계산해 각 학생당 400여 달러를 지급했었다.

이번 가을학기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하루당 5.86달러로 계산해 지급한다. 9월 학기 시작 후 10일을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받은 경우 58.6달러를 받게 된다. 정확한 금액은 자신이 받은 P-EBT 뒤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카드는 월마트, 아마존, 고스코, H마트 등을 비롯해 식품을 파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지난 봄에 받았던 P-EBT카드에 돈이 입금되며 만약 당시의 카드를 분실한 가정들의 경우 10월 1일부터 DTA-Connect.com/pebt에서 신규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새롭게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10월 우편으로 신규 P-EBT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P-EBT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푸드스탬프(SNAP)의 자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www.DTAConnect.com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카드는 비밀번호와 각 계좌번호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중산층 및 부유층 가정들 중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P-EBT카드를 파기하거나 자신이 식품을 구입해 기부할 수 있다.

또한 무료 점심 픽업은 P-EBT와 상관없이 여전히 제공되며 주내 수백개의 장소에서 제공되며 등록이나 신분증 제시가 필요없다. 장소는 계속 새롭게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되므로 근처 픽업장소를 이용해 픽업할 수 있다.



#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 내달 13일 열릴 듯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아마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했던 연례 할인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오는 10월 1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 경제 매체인 CNBC는 22일 뉴스 웹사이트인 더 버지가 입수해 보도한 아마존 내부 이메일 문서를 인용해 프라임데이 행사가 10월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오는 27일 이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마존은 지난 18일 물류 담당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통지를 통해서도 가을 성수기 준비를 위해



다음 달 13일부터 20일까지 휴가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고 CNBC는 덧붙였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는 통상 7월에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몇차례 연기됐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딱 한번 열리는 할인 행사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 매사추세츠 무료 코로나 검사 18 타운으로 확대

▶▶1면에 이어서

이들 타운의 검사소에서는 타운 주민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거주자이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무증상이라도 검사가 가능하다.

주정부는 양성 확진자로 판정이나는 경우 감염 추적 검사요원 또는 지역 보건부의 전화에 응답해

감염 경로 등에 대해 답해야 한다. 또한 격리 장소가 필요한 경우 617-367-5150으로 전화하는 경우 무료 격리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검사장소는 주정부 웹사이트(mass.gov/stopthespread)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 강력한 흑인 지지 마티 월시, 미셸 우에 크게 앞서

## 미셸 우 공식 출마 선언 이후 첫 여론조사서 선전 마티 월시, 미셸 우, 앤드레아 캠펬 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미셸 우 후보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비교적 잘 관리한 마티 월시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셸 우 후보는 샘윤에 이어 두번째 아시아인 보스톤 시장 도전자이다.

GBH가 매스아앤시 폴링그룹(MassINC Polling Group)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티 월시 시장은 46%의 지지를 확보해 23%를 확보한 미셸 우 후보를 2배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월 11일부터 미셸 우 후보의 공식 시장 출마 선언일인 9월 15일까지 보스톤 유권자들을 상대로 마티 월시 시장, 미셸 우 시의원, 그리고 앤드레아 캠펬 의원을 상징해 조사한 결과다.

미셸 우 후보는 시장 도전의사를

밝힌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23%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 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티 토 잭슨 보스톤 시의원은 2017년도 전에서 월시 시장에게 31%차이로 낙선했었다. 따라서 내년 시장 선거는 지난 선거와는 달리 상당히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캠펬 의원은 4%를 획득했다. 18%는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고 6%는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400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4.9%다. 이번 조사에서 당면한 최고의 이슈에 대한 질문에 39%의 보스톤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스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중요한 이슈는 높은 집값으로 12%가 중요 이슈로 지적했다. 경제와 일자리는 8%, 6%만 범죄와 공중안전이 주요 이슈라고 지

적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매스아앤시 폴링그룹의 스티브 캠펬라 회장은 “마티 월시가 상당히 앞서서 상황은 예상이 됐던 바다” 고 밝혔다. “마티 월시는 현임 시장이고 현임 시장들은 항상 이겨왔었다. 시장은 물론 대부분의 선출직은 현임에게 유리해왔다” 며 그는 “미셸 우나 다른 도전자들은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보스톤의 현임 시장은 지난 1949년 이래 한번도 패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아이아나 프레슬리 전 시의원은 마이크 카푸 아노 연방하원의원을 밀어낸 적이 있다. 따라서 현임이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리가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9월 현재 월시 시장은 현재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월시의 강점은 그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보스톤을 비교적 잘 운영했다는 점에 있다. 월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해서는 51%가 아주 잘했다고 점수를 주었고 34%도 잘한 편이라고 말해 무려 84%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캠펬라 “가장 중요한 이슈에 있어 사람들은 시장이 아주 잘 한



마티 월시 시장(좌)과 미셸 우 시의원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울스틴에 거주하는 조 오코인(44)씨는 “월시 시장은 아주 잘 시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무엇인가, 분명하게 잘못 운영한다면 그때부터는 싫어지게 된다” 고 밝혔다.

마티 월시에 대한 지지는 락스베리, 매타팰, 하이드파크 그리고 도체스터 등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강하게 나왔다. 54%의 주민들이 월시 시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16%만 우 시의원을 지지했다.

그러나 웨스트 락스베리, 로슬린 데일, 자메이카플레인과 미션힐 등은 40%가 미셸 우를 33%가 월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시 의원의 지지자인 윌 하킨스씨는 “나는 젊고 여성이며 그리고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과 같은 중요한 자

리에 앞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자메이카 플레인의 가브리엘라 스 피쳐씨는 “나는 백인 남성이 아닌 누군가가 시장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우시 의원을 지지하는 층은 월시 시장을 지지하는 층에 비해 비교적 젊고 진보적인 성향이였다.

특히 월시 시장에 대한 강한 지지는 흑인사회에서 나왔다. 5%가 그를 지지했으며 15%만 우 의원을 지지했다.

백인 유권자들은 반면 45%만 월시 시장을 지지했으며 25%가 우 의원을 지지했다. 히스패닉에서도 43%가 월시 시장을 20%가 우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

흑인 계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이 유종의 하나는 미셸 우 의원이 시 카고 출신이란 점이었다. 흑인 유권자들은 60%가 보스톤에서 자라난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백인은 29%만 보스톤 출신을 선호했다.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공인 회계사

### 정진수

CPA / 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자료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성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앤드레아 캠벨 시의원도 시장 도전 선언

미셸 우에 이어 2021년 시장 선거 2번째 출마 현재는 인지도 낮아, 흑인 인권 경찰 개혁 주장



앤드레아 캠벨 보스턴 시의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앤드레아 캠벨 보스턴 시의원 23일 2021년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캠벨 의원은 보스턴의 뿌리깊은 인종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스턴을 좀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38세의 흑인 여성 변호사 캠벨 시의원은 미셸 우 시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2021년 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한 후보다. 캠벨 의원은 매태팬과 도체스터, 로슬린데일 그리고 자메이카 플레인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현임 마티 월시 시장은 아직 3선 도전을 언급하지 않았다.

캠벨 의원은 2015년 시의원에 당선돼 이번이 3년이다. 2017년 재선 됐을 때 캠벨 의원은 첫 보스턴 흑인 여성 시의장으로 활약했다.

캠벨 의원은 지속적으로 보스턴의 불평등을 지적해왔으며 경찰 개혁을 요구해왔다. 또한 최근 경찰의 권력남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는 지난 3월 보스턴시에 2017년 이래 보스턴 경찰의 차량 정지, 수색, 그리고 주민 정찰 자료를 요구기도 했다.

그는 최근들어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서 월시와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월시 시장이 경찰 예산의 일부를 재조정하겠다고 하자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7월 예산 투표에서 캠벨 의원은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당시 예산은 8-5로 통과됐다.

최근 보스턴 GBH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월시는 46%, 미셸 우 23%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캠벨 의원은 4%를 획득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캠벨 시의원의 이름을 몰랐다.

캠벨 의원은 8월 말까지 \$285,000 선거자금을 확보했으며 미셸 우 의원은 \$346,000 선거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마티 월시 시장은

\$5.5million을 8월말 보유하고 있었다. 우 의원은 최근 출마 선언 후 2일만에 10만불을 모금했었다고 밝혔다.

센서스에 따르면 보스턴의 인구의 55%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됐으나 다만 지금까지 보스턴 시장은 줄곧 백인 남성이 차지해왔다.

캠벨 의원은 락스베리와 사우스 엔드에서 자라났으며 보스턴 라틴스쿨과 프린스턴 그리고 UCLA 법대를 졸업했다. 현재 매태팬에서 남편 그리고 2명의 아들과 거주하고 있다. 드블 패트리 주지사의 부변호사로 일했었다.

캠벨은 어린시절 비극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차량충돌사고로 8살 때 사망했고 아버지는 그가 8살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 때까지 친척 또는 포스터케어에서 자랐으며 때로는 공공 주택에서 푸드 스탬프를 통해 음식을 조달 받으며 자랐다. 그의 삶은 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 속에 자라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의 남동생은 주택 침입 및 기타 범죄로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불행을 여전히 이어갔다. 캠벨 의원의 오빠는 여성을 강간해 기소당했으며 검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명의 여성을 강간했다. 유죄인 경우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

hsb@bostonkorea.com

# 베이커 주지사 10월 17일 강제추출 중단 연장 안할 듯

건물주와 세입자 동시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고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다음달로 끝나는 세입자 강제추출 중단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로웰에서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4월부터 유지해왔던 모라토리움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대신 그는 세입자와 건물주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세입자 보호조치인 모라토리움이 길어질수록 역효과는 커진다. 단지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 특히 소규모 건물주들도 많은 경우 힘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가 연장되는 한 세입자 강제추출 중단 조치인 모라토리움도 연장 가능하지만 현재 강제추출의 급등을 막는 중재 조치를 포함, 렌트 보조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주지사의 지지 아래 주의회는 강제추출 금지 법안을 제정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세입자들의 추출을 지난 5개월 동안 막아왔다. 9월초 트럼프 행정부 CDC는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근거로 올해 말까지 미국내 강제추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 질병통제센터의 금지조치는 강력한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사추세츠의 금지조치 또한 건물주들의 강력한 소송에 부치고 있다.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이 아무런 보상 지급없이 건물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 연방 법원은 베이커 주지사에서 무기한 모라토리움 연장은 안된다고 경고를 보냈다. 베이커 주지사도 모라토리움 연

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온라인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강제추출 당하는 법원의 규정을 바꾸고,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렌트 보조를 늘리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글로브는 24일 밝혔다. 이같은 해법을 위해 법원 관계자들, 하우징 보호운동가들, 그리고 건물주들은 최근 몇 주 사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이끌던 주 최고법원 대법관 랠프 캔츠의 최근 사망으로 이같은 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퍽카운티에서만 약 1만8천 세입자들이 강제추출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스턴 파운데이션은 추정했다. 주정부의 렌트보조(RAFT)는 1년 기준 최고 \$4,000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한번의 비상상황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장기적 상황을 대비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매사추세츠 건물주연합 덕 쿼타로치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아주 절망스럽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정부가 함께 이 집들을 세입자들에게 보장해줬다면 지금의 모라토리움, 보호 조치는 필요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주연합은 렌트 보조를 위해 추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제시했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연진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 보스톤 주택 구매 광풍 지난달 집값 14% 폭등

▶▶1면에 이어서

레이터 보스톤 지역의 8월 주택 매물은 지난해 8월에 비해 23%나 줄었다. 주택 소유주들은 올해 봄과 여름을 지나며 주택 매매 대신 그대로 눌러 앉기를 선택했다. 반면 아파트 좁은 공간에서 렌트로 살던 주민들은 좀 더 넓은 공간을 선택하기 위해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 부동산회사 프리미어리얼티의 나원태 대표는 “과거 수요일, 목요일에 나오던 매물들이 지금은 월요일, 화요일에 나오고 주말에 오픈하우스를 지나면 바로 팔린다. 오픈하우스 전에도 집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많고 교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격보다 높은 제안가를 넣어야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은 지난 봄 락다운으로 인한 판매 지연 등과 맞물려 지금은 폭증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팀 워렌 워렌그룹 대표는 밝혔다. 특히 올해 집값은 봄철에 일부 상승기미를 보이다 여름철 들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만으로 집값이 인상한다고 설명하기에는 힘들다. 나원태 대표는 낮은 이자율에 투자가 가능한 대표적인 곳은 주식과 주택인데 불안한 주식보다는 주택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 대표는 “연방 금리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기지 금리가 3% 이하로도 형성되고 있다. 금리가 낮은 경우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고 안전 자산이 부동산 밖에 안남았으니까



주내 전역과 그레이터 보스톤 집값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두자리 숫자로 폭등하면서 매사추세츠 주택시장이 8월 뜨겁게 달아올랐다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3년 정도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 2000년 중반 주택 거품 현상을 보일 때와 유사하다고 워렌 대표는 지적했다. 워렌 대표는 “약간은 두렵지만 주택 매물 재고가 없다보니 약간의 주택 구입의 광풍의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글로벌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스톤 지역 대학, 병원, 지방 정부들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중산층의 실업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에는 수요는 강세다. “고소득 일자리는 여전히 고수익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유동성을 공급해준다. 높은 실업

률실업 불구하고 경제는 여전히 굳건해 보인다”는 게 워렌대표의 이야기다.

매사추세츠 주택 시장에 뚜렷한 이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년 두번째 주택(second homes)이 약 50%를 차지하는 낸터킷과 마타스비너드, 20%를 차지하는 케이프코드 버크셔 카운티 등의 지역의 주택값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쪽, 미들섹스, 노퍽 카운티 집값 상승세의 2배다. 반면 콘도 가격은 매물도 많으며 상승세도 아주 완만하다.

이 같은 추세는 보스톤과 케임브리지의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선택하면서 고소득 근로자들이 보스톤과 케임브리지에 가까운 콘도에 사는 장점이 감소한 반면 멀리 떨어진 교외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이 같은 현상은 확실히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다.

# 미 절반 넘는 28개 주서 코로나19 환자 증가세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의 전체 50개 주(州)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5~7월 급속히 재확산했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을 되찾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28개 주에서 최근 1주일 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분석했다.

몬태나·와이오밍·콜로라도·캔자스·애리조나·미네소타·위스콘신주 등 8곳에서는 증가율이 50%를 넘었고, 오리건·노스다코타·네바다·텍사스·플로리다주 등 20곳에서는 증가율이 10~50% 사이였다.

특히 28곳 가운데 위스콘신·아이다호·사우스다코타·아이오와·캔자스주 등은 검사 대상자 중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양성 판정 비율이 15%를 웃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업체·가게를 다시 문 열려면 최소한 2주 이상 양성 판정 비율이 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7개 주에서 양성 판정 비율이 5%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메인·버몬트·매사추세츠·뉴욕주는 양성 판정 비율이

1% 미만이고, 델라웨어·하와이·루이지애나·미시간·사우스캐롤라이나·버몬트주의 경우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전주보다 줄어드는 등 진전을 보이는 곳도 있다.

최근 대형 산불과 이에 따른 대기 오염에 시달린 오리건주에서는 6주간 감소세를 보이던 양성 판정 비율이 지난해 5.6%로 급격히 상승하며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밝혔다.

사람들이 매연을 피해 실내에 머물면서 서로 더 많이 어울리고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산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찾았기 때문이라고 FEMA는 풀이했다. FEMA는 또 산불에 따른 대피 명령과 실내에 머물라는 정부의 권고로 코로나19 검사도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면수업을 재개한 텍사스주에서는 8월 초 개학 이후 이달 13일까지 학생과 교사 등 4천500여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에서는 학생 2천350명, 교사와 교직원 2천175명이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68만9천61명, 사망자 수를 19만9천606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sisyph@yna.co.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c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YOGA SONG HAYEON

# 하체를 날씬하게 만드는 초간단 스트레칭

“전 상체에 비해 하체가 두꺼워 늘 고민이에요.”

“골반과 허리통증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하루 중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면 허리에 서부터 엉덩이, 다리 주변의 근육들이 타이트해지고, 특히 잘못된 평소자세는 좌우 골반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이같은 현상이 심해지면 허리과 골반통증과 하체의 부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밖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번주는 골반의 균형을 가져오고 하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의 다리를 날씬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귀한 운동 후나, 러닝 이후 쿨다운 스트레칭으로도 매우 좋은 동작들이니 필요할 때마다 유튜브영상을 보시며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영상 중, NO TIME FOR COOL DOWN? (초간단 전신스트레칭) 편을 찾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자세외에도 다양한 스트레칭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HAYEON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필라테스 운동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번째로 배운 동작은 내전근을 스트레칭해주는 워리어자세 변형입니다.

이같은 스트레칭은 골반과 허리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STEP 1 : 왼무릎을 바닥에 대고 오른 무릎을 앞으로 보내 천천히 내쉬는 숨에 무릎을 구부립니다.

STEP 2 : 엉덩이를 바닥을 향해 내릴수록 허

벅지 안쪽에 위치한 내전근에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POINT! : 척추를 길게 편 상태를 유지해주시고, 엉덩이를 바깥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꼬리뼈를 바닥쪽으로 끌어내리며 수직 하강하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내려주세요 합니다.

STEP 3 : 3-5회 깊은 호흡으로 자세 유지하고 두번째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두번째 자세는 몸의 옆면을 열어주는 사이드 스트레치입니다.

직접적으로 하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허리통증을 줄여주고, 동시에 날씬한 옆선과 몸매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STEP 1 : 첫번째 동작에서 천천히 중앙으로 와 왼손으로 바닥을 잡고 왼다리를 뺀고 오른손을 머리 넘어로 뻗어주세요.

STEP 2 : 배꼽을 등쪽으로 살짝 당긴 상태에서 몸의 옆면을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POINT! : 왼발로 바닥을 강하게 미시고, 왼손을 더 멀리 뻗되, 어깨의 긴장은 풀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세번째 자세는 몸의 앞면을 열어주는, 활변형 자세입니다.

STEP 1 : 두번째 자세에서 바로 왼손을 천정으로 보내고 코어의 힘으로 왼발을 매트에서 떼어 중심을 잡아줍니다.

STEP 2 : 왼무릎을 접고 왼손으로 왼 발 혹은 발목을 뒤에서 잡아줍니다.

POINT! : 허벅지 앞면에 타이트하신분들은 무리해서 발을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잡하시는 분들은 가슴을 앞으로 보내고 발을 엉덩이에서 조금씩 멀리 보내주면서 스트레칭해주세요.

STEP 3 : 깊은 호흡과 함께 3-5호흡해주시고 잠시 휴식한후 앞에서 배운 세가지 동작을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진행해주세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앞에 알려드린 세 동작을 끝내면 5분이 안되는 짧은 스트레칭이니 COOL DOWN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하단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후기가 다음 영상과 칼럼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주무시기 전에 하체 마사지를 해주시면 골반 통증과 허리, 또 하체부종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유튜브 Playlist에서 폼롤러 마사지편 참고하시며 매일 해주시면 통증도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가꿔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먹고싶은 음식이 당길때 그 음식을 찾아먹게 되듯,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그때그때 내 몸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짬나실 때 마다 제 채널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열어주고 디톡스해주는 요가 스트레칭과 근력을 키울수 있는 필라테스 운동들도 꼭 한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중에서 나에게 맞는 영상들은 나만의 플레이스트에 저장해두었다가 본인만의 일주일 루틴을 만들어보세요. 매일 단 5분도 좋아요. 나의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이 쌓여 내 몸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제가 10년 넘게 매일 요가를 하며 온몸으로 체득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며 이번 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요가송이 응원하겠습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 Janice & Lisa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제니스 리**

**978.806.6023**

JLee@OwnNewEngland.com

**리사 리**

**857.294.9760**

LLee@OwnNewEngland.com

주택 / 건물 / 투자, 원하시는 매물 확실히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Janice & Lisa Team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 Compass Services

###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 정기적 성생활, 심장마비 후에도 생존율 35% 더 높아

심장마비 생존율과 성관계 밀접한 상관관계  
이스라엘 연구진 65세 이하 심장마비 환자 495명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심장마비 후 수개월 안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재개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럽심장학회(ESC)는 23일 발간한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EJPC)에서 1992년~1993년 심장마비로 처음 입원했던 65세 이하 495명의 성생활과 20년 이상 생존율을 대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

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63세였으며, 90%가 남성이었다. ESC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심장마비 후 성관계를 중단했거나 줄인 사람(47%)과 반대로 3~6개월 안에 성관계를 평소대로 유지했거나 더 늘린 사람(53%)으로 나뉘었는데, 후자의 생존율이 35% 더 높았다. 성관계를 활발히 유지한 사람

들의 장수는 또 암과 같은 비심혈관 관련 사망 원인을 크게 줄여준 것으로 추정됐다. 심장마비 환자 중 211명(43%)이 22년의 조사 과정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다. 논문 저자인 야리브 저버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교수는 "성생활은 장수의 표시"라고 전제하며 "심장마비 후 빠르게 성생활을 재개하는 것은 건강하고 젊고 활기찬 사람이라는 자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활발한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초기 심장마비 충격

후 수개월만에 육체적인 건강과 배우자와 강한 유대, 정신력 등을 회복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성생활도 일종의 신체 운동이어서 심장 박동을 늘려주고 혈압을 높여줘 운동할 때처럼 장기적으로 심장 관련 질환을 줄여준다는 분석이다. 다만 갑작스럽게 격렬한 신체 활동은 때때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생활이 심장을 튼튼하게 해 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만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저버 교수는 이어 연구에 여성 참여자들이 적어 연구 결과를 여성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연구도 관찰 조사여서 성생활에 따른 인과관계로 인식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생활 자체의 순수한 장점은 여전히 논쟁거리"라면서 "이번 조사가 심장마비 후 성생활을 복귀하려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션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마음대로 골라본다**  
**\$24<sup>99</sup>**

---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b>Plus 상품</b> KBS, MBC, SBS, EBS, YOUTUBE</p> <p><b>\$24<sup>99</sup></b></p>	<p><b>Premium 상품</b>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p> <p><b>\$34<sup>99</sup></b></p>	<p><b>VIP 상품</b>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p> <p><b>\$39<sup>99</sup></b></p>
---	--	---

\*전상품 1년 약정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케임브리지한인교회**

(3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251-9611)  
교회 홈페이지: [www.firstkoreanchurch.org](http://www.firstkoreanchurch.org)  
Facebook: 케임브리지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Instagram: 케임브리지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Online Worship (주말 오전 11시): YouTube 'FKCC Media Ministry'  
(교외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한인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 사역에 가치를 두고 40여년을 한결같이 청년 (유학생) 사역에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엠 'FKCC'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은 위 전화나 교회 이메일 [info@firstkoreanchurch.org](mailto:info@firstkoreanchurch.org)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리튬 생산 계획을 추진 중인 일론 머스크

#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리튬 생산계획

## 점토서 리튬 추출하는 공정에 전문가들 의문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운섭 특파원 =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을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테슬라의 리튬 생산 계획이 극한 장애에 직면해 있다'며 리튬 생산 공정 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22일 배터리 신기술 등을 설명하는 '배터리 데이'에서 리튬 생산 계획을 밝혔다.

머스크는 점토 퇴적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지속 가능한 공정을 개발했다면서 네바다주의 1만에이커(40km<sup>2</sup>) 퇴적물 부지에 대한 이용 권리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점토 퇴적물과 소금을 섞은 뒤 물을 부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리

튬이 추출된다는 게 테슬라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리튬 생산 계획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물을 이용해 리튬을 추출하는 공정이 검증되지 않았고, 리튬의 상업적 생산이 언제 가능할지,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지에 대해 테슬라가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네바다주에서는 이미 다른 기업들이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물이 아니라 산성 용액을 사용하는 공정을 채택하고 있다.

리튬 산업 분석가인 크리스 베리는 '테슬라의 리튬 생산 계획은 해답보다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며 "기존의 리튬 생산 방법보다 비용이 낮을 것이라는 머스크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글로벌 X의 피드로 팔렌드라니 애널리스트는 "리튬 추출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테슬라가 정말 혼자서 그 일을 해내려 한다면 앞으로 4~5년 뒤어나 가능한 얘기"라고 진단했다.

건조한 기후의 네바다주에서 리튬 추출에 쓰일 물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블로그는 "네바다 사막지대에서 물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테슬라의 공정대로라면 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며 "테슬라가 리튬 추출을 위해 네바다의 건조 지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려 한다면 (물이 필요한) 가축 목장 주인들과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jamin74@yna.co.kr

# 파월 연준의장 "미국인들, 대출금 못갚고 집에서 쫓겨날수도"

(워싱턴=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추가 가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채무 불이행에 따른 퇴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해질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지금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받은 미국인들을 위한 정부의 소득 지원 덕분에 경기 회복이 기대 이상으로 빨랐다는 것이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2조3천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패키지에 따라 각 가정에 지급된 지원금이 바닥나고 있다고 파월 의장은 우려했다.

그는 "그들이 결국엔 돈을 다

써버려 소득을 줄여야 하고, 어찌면 소유한 집이나 빌린 집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것이 바로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의 하방 리스크"라면서 "아직 이런 현상이 많이 목격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머지않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연준의 기업대출 창구인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 돈 풀기를 예고했다.

그는 "연말까지 총 대출금이 최대 3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기업에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상원에 함께 출석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향이 있다면 나도 초당적 입법을 위해 언제든지 마주 앉을 것"이라며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언급, 추가 경기부양책 통과를 촉구했다.



# 신신마트

##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신신 가을 이벤트**

오뚜기 설렁탕 혹은 사골곰탕

- 1 FREE \$150.00 or more
- 2 FREE \$250.00
- 3 FREE \$350.00 or more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터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터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깜짝 증가 "경제회복 동력 약해졌다"

## 지난주 청구 87만건으로 4천건 ↑...전문가 예상치보다 3만건 많아

(워싱턴=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의 새 실직자 수가 예상을 깨고 다시 늘어나 경제회복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 노동부는 24일(현지시간) 지난 주(9월 13일~1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7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 86만6천건에서 4천건 증가한 수치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뜨린 결과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모두 84만 건이었다.

청구 건수는 4주 연속 100만건 미만을 유지했으나, 여전히 이례적으

로 높은 수준이라고 미 언론들이 평가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천258만건으로 직전 주보다 16만7천건 감소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블룸버그 전망치(1천230만건)를 웃돌았다.

이날 결과는 경제 회복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경제 회복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패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추가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현상

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만 해도 별다른 타격이 없었던 금융서비스와 기술 분야로도 해고 사태가 확산 중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부양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 사태는 3월 셋째 주(330만건)부터 본격 시작됐다.

같은 달 넷째 주에 68만건까지 치

솟은 이후에는 석 달 넘게 감소세를 탔다.

월 24~30일 주(188만건)에는 처음으로 200만건 밑으로 내려왔다. 이후 157만건(5월 31일~6월 6일), 154만건(6월 7~13일), 148만건(6월 14~20일), 141만건(6월 21~27일), 131만건(6월 28일~7월 4일), 131만건(7월 5일~11일), 142만건(7월 12~18일), 144만건(7월 19~25일), 119만건(7월 26일~8월 1일) 등 20주

연속 10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미치기 전인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22만건 수준이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최고 기록은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2년 10월의 69만5천건이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65만건까지 늘어난 바 있다.

# 미 복지장관 "코로나 백신 승인 정치가 관여하지 않을 것"

## 트럼프는 "FDA의 강화된 백신 지침 승인 않을 수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앨리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승인에 정치가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에이자 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나는 미국인들에게 정치가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에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에이자 장관은 이어 "우리가 당초 만들어둔 많은 독립적인 견제 장치와 시스템이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자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에 관한 미 식품의약품(FDA)에 지침이 더 엄격해진

다면 백악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 뒤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강화된 FDA 지침)은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승인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침 강화 움직임을 두고 "다른 무엇에 앞서 정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FDA는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지침을 상급기관인 복지부의 에이자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사해온 11월 3일 대선 전 코로나19 백신의 출시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sisyphe@yna.co.kr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 2020년도 장학생 모집

이화여대 동창회 보스턴 지회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한인 학생들이 많이 신청해주길 바랍니다.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Boston is proud to announce the Ewha Scholarship Program. Please find a description of the program and the application form in the website, <https://ewuaab.com/>

-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11학년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이화여대 동문 가족 이외의 지역 한인 학생도 해당)
- 신청 마감일: 2020년 10월 30일
- 선발기준: 신청서 참조
- 신청서 및 신청 방법: 동창회 웹사이트, <https://ewuaab.com/> 참조
- 문의: 장학위원장 이혜원, painter914@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보스턴지회 회장 신은경, 장학위원장 이혜원



이화여자대학교동창회 | 보스턴지회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BOSTON

#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고용유지지원금을 추석전 지급키로 논의한 당정청 관계자들

# 당정청 "7.8조원 추경 중 5조원 추석 전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등 심사 필요 예산 9천억원은 10월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 예산의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 경기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 등 정보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 사전 선별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고,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은행 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은 또 중복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

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추경 중 예비비를 뺀 7조원 중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신청 심사가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 등 9천억원은 10월부터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신비는 총 4천억원 규모로,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이 없도록 정부가 사후·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vs2@yna.co.kr

# 기재부 공운위,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

## 태풍 이유로 국감장 떠나사적 모임 논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4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 논의한 끝에 의결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자세한 논의 내용에 대해 공운위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인사 사안이고 공운위 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도 아니라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전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

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안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당일 일정을 국회로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기관 인사 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 사장은 태풍 관련 사안에 대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됐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해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인사 문제 역시 직원이 심한 수위의 항의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 추석맞이 대세일

### CELEBRATE THE FULL MOON HARVEST

H 마트가 드리는 풍성한 가을 추석 세일! 올해 추석은 10월 1일입니다.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p>*** PREMIUM QUALITY ***                  Fuji Apple 후지사과 LB  <b>\$1.49</b></p>	<p>White Cabbag 화이트 양배추 LB  <b>\$0.79</b></p>	<p>Korean Enoki Mushroom 한국산 팽이버섯 PRODUCT OF KOREA/7.05 OZ.  <b>2\$3</b>                  Pkg./100</p>	<p>Clementine 클레멘타인 3LB BAG  <b>\$4.99</b></p>	<p>FRI/SAT/SUN ONLY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b>\$0.99</b></p>
<p>FRI/SAT/SUN ONLY                  House Cucumber 하우스 오이 EA.  <b>\$0.99</b></p>	<p>FRI/SAT/SUN ONLY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2LB PKG.  <b>\$6.99</b></p>	<p>Sweet Potato 햇 고구마 LB  <b>\$1.99</b></p>	<p>Kobacha 단호박 LB  <b>\$0.99</b></p>	<p>SOONYEONWON Tofu 수녀원 두부 3종 SOFT/SILK/FIRM/14-16OZ.  <b>\$1.29</b>                  PKG.</p>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Fresh Beef Heel Meat 생 소 사태 LB  <b>\$7.99</b></p>	<p>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생 돼지 목살 LB  <b>\$6.99</b></p>
<p>Fresh Pork Single Belly Chunk 수육용 생 삼겹살 LB  <b>\$6.99</b></p>	<p>Fresh Chicken Drumstick 생 드럼스틱 LB  <b>\$1.49</b></p>
<p>Frozen Beef Bones 냉동 사골 LB  <b>\$1.49</b></p>	<p>Marinated Pork for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b>\$5.99</b></p>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I/SAT/SUN ONLY                  SUHYUP Dried Squid 수현 건오징어 11.64 OZ./PKG.  <b>\$32.99</b></p>	<p>FRI/SAT/SUN ONLY                  TONGTONGBAY Frozen Sliced Cod Fillet 통통베 냉동 대구 전갈 14 OZ./PKG.  <b>\$5.99</b></p>
<p>FRI/SAT/SUN ONLY                  Frozen Head-on Shrimp 머리새우 39-40'S/LB  <b>\$5.99</b></p>	<p>FRI/SAT/SUN ONLY                  THE Dried Dasi Anchovy 더 맛있는 다시멸치 3.3 LB/BOX  <b>\$24.99</b></p>
<p>FRI/SAT/SUN ONLY                  KONO Frozen Mussels in the Half Shell 크노 냉동 반전황합 1.5 LB/PKG.  <b>\$9.99</b></p>	<p><b>HOT SALE</b>                  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b>\$6.99</b></p>

###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Medium Grain Rice 하루 하루 마이쌀 15 LB  <b>\$13.99</b></p>	<p>H MART SMART CARD ONLY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7.4 OZ. X 12 BOWLS /BOX  <b>\$12.99</b></p>
<p>H MART SMART CARD ONLY                  KWANGCHUN Premium Green Tea Seaweed 광천 녹차김 청파래 녹차김 선물세트  <b>\$9.99</b>                  ORIGINAL/GREEN LAYER 0.71 OZ. X 10 EA./BOX</p>	<p>H MART SMART CARD ONLY                  HAO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빛 굴비 2.5 LB  <b>\$13.99</b></p>

<p>KYONG GI No.1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  <b>\$29.99</b>                  NEW CROP</p>	<p>CHUNGJUNGONE O'FOCO Gochujang 청정원 오뚜기 순창 고추장 BROWN RICE RED PEPPER PASTE-6.6 LB  <b>\$14.99</b></p>	<p>KADOYA Canned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OZ.  <b>\$14.99</b></p>	<p>SEMPIO Naturally Brewed Soy Sauce 샘표 맑은 조선간장 31.44 FL.OZ.  <b>\$4.99</b></p>	<p>YOODONG Canned Bai Top Shell 유동 냉동 바위조림 14.1 OZ.  <b>\$7.99</b></p>
<p>BOHAE Maewon Prime 보해 매원 프리미엄 PLUM CONCENTRATE 16.9 FL.OZ.  <b>\$7.99</b></p>	<p>S&amp;B Golden Curry Sauce Mix S&amp;B 골든카레 4종 MILD/MED. HOT HOT/EXTRA HOT 7.8 OZ.  <b>\$2.99</b></p>	<p>HAIOREUM Imitation Crab Meat Sticks 해오름 게맛살 2.2 LB  <b>\$3.99</b></p>	<p>DURDAM Mesiil Famie Ingeolmi 두리담 영랑모시 인절미 RICE CAKE 2.2 LB  <b>\$11.99</b></p>	<p>ORION Cosomi 오리온 고소미 SWEET &amp; SALTY CRACKER 7.62 OZ. (17.2 EA./PKG.)  <b>\$2.99</b></p>
<p>H2C Coconut Water H2C 코코넛 워터 16.9 FL.OZ.  <b>\$0.99</b></p>	<p>SAHMYOOK Black Bean Calcium Soy Milk 삼육 검은콩 칼슘 두유 195 mL X 24 EA. /BOX  <b>\$15.99</b></p>	<p>KUHAUS 5 Tier Mini Food Dehydrator 쿠하우스 5단 미니 음식건조기 26 X 25 X 23 CM. <del>\$34.99</del>  <b>\$24.99</b>                  WHITE/GREEN EA.</p>	<p>KOTO Stainless Steel 3 Tier Steamer 코토 3단 찜솥 CAPSLED BOTTOM 28 - 32 CM/EA. <del>\$37.99-42.99</del>  <b>\$27.99-\$32.99</b></p>	<p>Korean Gambling Card Game/ Playing Yut/100over Play Gonggi 패대로 화투/숫놀이/이러 담인의 공기 <del>1.49-3.99</del>  <b>\$0.75-\$2.49</b></p>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종가집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6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typo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수잔 안**  
**339.224.1512**  
 susan@bostonpremierrealty.com

## OUR AGENTS



**이제봉**

781.654.5281

jblee@bostonpremierrealty.com



**애나정**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 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김원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렌트전문  
팀장**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 FEATURED LISTINGS



###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트에 위치, 메인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넌트

Asking \$825,000

## LISTINGS



### ● 세탁소 건물 + 비즈니스

현재 영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sking \$999,000



###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영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년매상 \$250,000

Asking \$189,000



###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에 위치, 1층 식당, Property 텍스 저렴 2&3층 Residential 아파트, 월 렌트 인컴 \$5,500

Asking \$599,500 Price Reduced



###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컴,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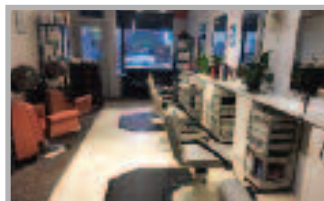
Asking \$200,000



###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NEW



###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Asking \$40,000 Price Reduced



###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Asking 문의 바람 금매



###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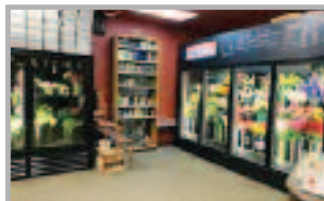
Asking \$320,000



###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sking only \$90,000 Price Reduced



###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히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영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영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Asking \$80,000 Price Reduced

# 북, 실종자 해상서 사살 · 불태워 '잔혹대응'

## 탈북민 개성 월북 후 후속 조치인듯...8월부터 국경완충지대 설정하고 사살 지침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돼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측 공무원을 처형한 잔인한 만행의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그 어떤 설명으로도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잔혹한 행위는 인명 경시와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 체제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아직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경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기진맥진'한 남측 공무원을 배에 태우지도 않은 채 진술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사격을 가했고, 사살 후에는 방독면에 방화복을 입은 군인이 기름까지 부어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북측 해상에 들어온 남측 공

무원을 사람이 아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듯 다룬 셈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월북한 개성 출신 탈북민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며 월북민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전방 군부대 간부들을 처벌한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하자 7월 26일 직접 당정 치국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급 경보를 발령했으며 국가비상방역 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더욱이 회의에서는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전방) 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 근무상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관련 부대 지휘관과 군인들에 대한 처

벌이 이뤄지고 대응책을 토의했다는 점에서 이후 접경지역을 지키는 군부대의 긴장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해군계통의 상부지시'라고 밝혔는데, 개성출신 탈북민의 월북 사건을 계기로 북한 군부와 남북 접경지역 군부대의 신속한 코로나 강경 대응에 힘이 실렸을 수 있다.

인명 경시에 익숙한 북한 군인들이 이번 사건의 악영향과 후유증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로지 코로나19 유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모하게 벌인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 매체들은 7월부터 "해상에서 밀려 들어오거나 공중에서 날아오는 물체 등을 발견하는 경우 소각 처리하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라"며 선제적 대책을 촉구해왔다.

일각에서는 일선 부대의 자의적 판단보다는 탈북민 월북사건을 교훈 삼아 남북 경계를 넘으려는 사람에 대해 월남자는 물론 월북자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사살하라는

지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종전 같으면 월북자나 월남자를 붙잡아 신원과 배경 등을 조사하고 송환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유입 차단이 최우선 국가적 과제인 만큼 특단의 조치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사회안전성에서 지난 8월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 봉쇄 지침을 내렸다"며 "그 지침에는 국경 봉쇄선 1~2km 계선에 코로나 방역을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완충지대에 들어왔거나 국경 차단물에 접근한 인원과 짐승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에 1~2km의 새로운 '버퍼존'(완충지대)을 설치했다"며 "이 지역에 북한 특수작전

부대(SOF)가 배치됐으며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살상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국경 지역 완충지대 설정과 완충지대 접근 인원에 대한 사살 지침은 남북이 인접한 바다와 전방 지역의 군부대와 군부에도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보이며, 남측 공무원에 대한 잔혹 대응행위도 이런 연장선 일 가능성도 있다.

남북관계의 단절 속에서 불거진 이번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은 남측 정부가 고민해온 자그마한 해결책마저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속에서도 남측의 지원을 외면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했다는 이유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10월 10일 10시

# 코로나극복 한겨레 걷기 한마당

2020. 10.10 (Sat) 10am  
Woburn Horn Pond

- ✓ 가족단위로 걷기
- ✓ 안전거리 유지
- ✓ 홍삼선물 증정
- ✓ 애완동물 환영



모이는곳

Lynch Elementary School 주차장  
10 Brantwood Rd Winchester MA 01890

매사추세츠 한인회 주최

후원 : 보스톤 총영사관 | 재외동포재단 | 보스톤 정관장

경품



정관장 홍삼원골드

걷기 이후 1가정에 1박스씩  
면역력 높일수 있는  
정관장 홍삼제품 증정

#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인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코리아**

##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혁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 (한미예술협회장)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라모니아 보스톤  
보스톤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진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태  
사라 제럴드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월요일: 아침 6시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QR 코드 스캔  
<https://bit.ly/2JJ6ZdT>

미사는 본당 성전에서 모든 미사는 본당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합니다. COVID-19관련 신자분들 유의사항은 본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 급매 커머셜 건물

1층 식당 2-3층 아파트  
최적의 은퇴투자  
보스톤 북쪽 도시에 위치

연락처 : 978.494.2043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공요격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 급매 커머셜 건물

1층 식당 2-3층 아파트  
최적의 은퇴투자  
보스톤 북쪽 도시에 위치

연락처 : 978.494.2043

##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COUNT ALL  
**ilkids**  
CENSUS 2020

United States®  
**Census**  
**2020**



##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인 구통계조사에 참여하세요. 어린이와 아기도 모두 참여하세요!

2020 인구통계조사에는 어린이도 참여해야 합니다. 본인과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시간을 여러분의 집에서 보내는 모든 아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아기를 참여시키면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조카, 양육아부터 심지어 임시로 함께 살고 있을지라도 친구 또는 친척의 아이까지 모두 집계해주세요. 아기도 포함됩니다! 아기가 아직 병원에 있을지라도 2020년 4월 1일 전 출생이라면 이 아기도 포함하여 여러분의 주소로 인구통계조사 양식을 완성해주세요.

2020 인구통계조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2020Census.gov , 를 방문하시거나 844-330-2020에 전화하세요.  
#2020Census #CountAllKids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일부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



김영철  
삼성제일클리닉원장

# 두통(headache)

두통은 전두부, 측두부, 후두부, 뒷목 등에 발생하는 모든 통증을 말하며 사람이 평생 한두번은 겪는 흔한 증상이다. 두통은 원인에 따라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차성 두통은 측두 동맥염(temporal arteritis),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등에 의해 흔히 발생되고 뇌종양, 뇌출혈, 뇌(수막)염과 같은 심각한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은 별다른 후유증을 일으키지 않는 일차성 두통이며 편두통(Migrain), 긴장성 두통(Tension headache), 군발두통(Cluster headache)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일차성 두통을 중심으로 임상증상과 치료법 등을 중심으로 저술하겠다.

### 1) 편두통(Migrain)

흔히 머리의 한쪽 부분에 국한된 통증을 편두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편두통은 많은 경우 양측으로도 발생하고 60%에서 편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보통 10대부터 증상이 나타나며 40-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전 인구의 10%정도가 편두통을 경험할 정도로 흔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

고 스스로 복합두통약 등을 투약하고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편두통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신경과 뇌혈관의 기능이상에 의해 발생하며 스트레스, 수면장애, 금식, 카페인 함유 음식, 알코올 등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은 혈관의 박동에 따라 육신육신, 지끈 지끈하는 형태의 두통으로 나타나며 안구통과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두통이 발생하기 전 시야의 흐림이나 반짝거림, 아지랑이 모양 등의 형태로 전조(aura)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전조 증상의 유무는 편두통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가벼운 두통에서부터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격심한 두통이 4시간에서 3일간 지속되기도 하여 심한 경우 신경과 의사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확한 진단 후에 예방적 약물요법 등을 비롯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제는 아스피린, 타이레놀(Acetaminophen),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가 비특이적으로 사용되며 에르고타민이라는 약물이 편두통의 치료제로 과거 60여년 간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트립탄계의 약제가 세로토닌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 초기 급성기 증상의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트립탄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두통이 자주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예방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면 필요 없는 진통제의 오남용을 막고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줄여 줄 수 있다.

### 2) 긴장성 두통(Tension headache)

긴장성 두통은 두개골 주변의 근육이 스트레스, 우울증, 운동부족, 바르지 않은 자세 등으로 긴장 수축하여 주로 목이나 후두부 쪽에 양측으로 발생하는 두통이며 편두통과 비교하여 비 박동성이고 경도에서 중등도의 통증을 보이고 아침에 개선되었다가 저녁에 보통 악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장형 두통은 빛이나 소리 같은 주변환경이나 걷기 등의 신체 활동에 의해 악화되지는 않으며 구역, 구토를 동반하지 않고 두통 있는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 압통이 느껴지기도 한다. 긴장성 두통은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20-4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을 알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치료는 일반적인 진통제에 잘

반응하므로 빈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삽화성(episodic) 두통에서는 예방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엔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여 예방적인 치료를 하기도 한다. 아울러 스트레스와 수면을 개선하고 적절한 운동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사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3) 군발성 두통(Cluster headache)

발작성 야간두통이라고 하는 군발(성) 두통은 한쪽 눈 주위와 관자놀이에 격렬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지속되며 아픈 부위에 눈물, 콧물, 코막힘, 발한 등의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으며 증상이 발생되는 군발기에는 일정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수개월 이상 증상이 없이 지내는 소실기간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있는데 10% 정도에서는 만성경과를 보이며 소실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두통이 여성에서 많지만 군발두통은 남자에서 5배 이상 많이 발생하며 20-40대의 연령층에서 호발 되고 노령층에서는 빈도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유병율은 0.01%로 다른 두통에 비해 드물고 알코올, 흡연 등이 증상을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격심한 증

상을 보이는 반면에 후유장애는 동반하지 않는다. 치료는 금주, 금연이 기본이며 급성기에 트립탄(편두통 치료제)을 피하주사하거나 100%산소공급이 도움이 된다. 예방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나 칼슘차단제가 이용되기도 한다.

두통은 삶의 질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일차성 두통은 후유증과 합병증 등을 동반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평소와 다른 형태의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의식소실, 편마비 등을 동반하는 경우, 늦은 나이에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은 이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어 MRI 같은 정밀검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심 해야 한다.

원장,전문의 김영철  
현)삼성제일클리닉 원장  
심사평가원 당뇨치료 우수병원 선정  
심사평가원 고혈압치료 우수병원 선정  
섬유대학의과대 연수병원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현)고려대학교 의과학교실 외래교수  
대한통증의학회 통증유발점  
주사치료과정 수료  
대한외과학회학회 정회원  
대한대장항문학회 정회원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비전과 열정있는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보스톤 최고 한인 부동산 회사 Premier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bostonpremierrealty.com

275 Grove St. Suite 2-400  
Newton, MA 02466

#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 코로나19 예방하기!!

- ① 함께있는 자리엔 마스크 꼭!꼭! 해요.
- ② 손은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 ③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야 해요.

# 방탄소년단, 유엔총회 메시지 "다시 꿈꾸고, 함께 살아냅시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우리의 내일은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확정 거리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동이 뜨기 직전이 언제나 가장 어둡습니다."

2년 만에 유엔 무대에 돌아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부딪힌 청년 세대에게 "함께 살아내자"며 연대의 메시지를 건넸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시간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고위급 회의에 특별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제75차 유엔 총회 부대 행사로 마련된 이번 회의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6분여의 영상 메시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음악을 만들며 다시 일어난 자신들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들려주

며 "다시 꿈을 꾸자"고 청했다.

RM은 2년 전 유엔총회 연설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의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월드투어가 전면 취소되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혼자자가 됐고, 밤하늘을 올려다봐도 별이 보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민은 "절망했다. 모든 게 무너진 것만 같았다"며 "어제는 전 세계 팬분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었는데 오늘은 제 세계가 방하나로 줄어든 것만 같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저의 동료들이 손을 잡아줬다"고 덧붙였다.

슈가도 "오랜만에, 어찌면 데뷔 후 처음으로 일상이 찾아왔다.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뷔는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우울해졌지만 메모를 하고 노래를 만들며 나에 대해 돌아보기도 했다"며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지'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제이홉은 "많은 감정을 끌어안고 우리 일곱 멤버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음악이기에 모든 것에 솔직할 수 있었다"며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정해진 답도 없다"고 불확실한 삶을 통과하는 청년들을 위로했다.

진도 "미래에 대한 걱정, 끊임 없는 노력,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격려해 주고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며 '난 빛나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I'm diamond, you know I glow up)이라는 신곡 '다이너마이트' 가사를 sang했다.

정국은 "불확실한 오늘을 살고 있지만 사실 변한 건 없다"며 "내

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린 그러길 원하고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배턴을 이어받은 RM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마주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노력하자"며 "방탄소년단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영상은 일곱 멤버 한 명 한 명이 "삶은 계속됩니다"(Life goes on)라고 말한 뒤 "함께 살아냅시다"(Let's live on)라고 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방탄소년단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자기애와 긍정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면서 청년 세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유니세프와 함께 아동·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 캠페인도 벌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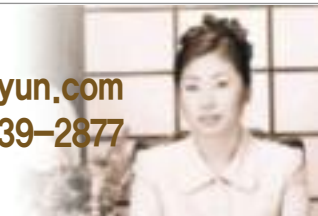
이런 메시지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9월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유엔총회 행사장에서 연설했다. 당시 멤버들은 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 단상에 올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만의 목소리를 내자"는 메시지를 젊은 세대에 전했다.

kimhyoj@yna.co.kr

9월 27일 - 10월 3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뽀족한 해답을</b></p> <p>●운수: 기만히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것을 보면서 벗어나려는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당장은 금전문제에 대한 뽀족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면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애정: 밀다밀다 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밀게 보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아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9, 1일 길일, 27, 3일 주의.</p>	<p><b>소띠   얼마든지 기회가</b></p> <p>●운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금전: 실패를 여기서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노력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도전하면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좀 더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7, 30일 길일, 28, 3일 주의.</p>	<p><b>범띠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b></p> <p>●운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겪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잘 극복해야 합니다. ●금전: 가능성이 안 보이면 포기하도록 하세요. 이미 손해 본 것이 복구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애정: 상대의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8, 2일 길일, 27, 29일 주의.</p>
<p><b>토끼띠   한만큼 얻는 것이 있는</b></p> <p>●운수: 주위의 도움을 사양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세상 아니니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전: 열심히 하느냐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거나 한만큼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정: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그때그때 전하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28,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p><b>용띠   막혔던 일이 풀릴</b></p> <p>●운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분위기가 바뀌면서 막혔던 일이 풀릴 것입니다. ●금전: 인맥을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득의 결과의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애정: 꼭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떨어져 큰 일은 줄만 알지만 그 손을 놓는 순간 날개가 있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7, 30일 길일, 28, 1일 주의.</p>	<p><b>뱀띠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b></p> <p>●운수: 강한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되려면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금전: 가까이에 금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솔직히 속사정을 표현해야 제대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애정: 자신이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보세요. 상대도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7, 1일 길일, 29, 2일 주의.</p>
<p><b>말띠   분주하게 뛰어다녀야</b></p> <p>●운수: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나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금전: 일이 성사되기 전에는 입을 꼭 다물어야 합니다. 오히려 다 된 일이 막판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 불안속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평을 밖으로 내는 순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p>	<p><b>양띠   불쑥 통하는 마음이 생기고</b></p> <p>●운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보세요. 전보다 대인관계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금전: 완벽하게 하려다가는 끝이 없는 법이니 매사에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빈틈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잘 풀리게 합니다. ●애정: 누구나 어느 날 불쑥 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무조건 빠져들어 갈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3일 길일, 28, 1일 주의.</p>	<p><b>원숭이띠   여유가 생기면서</b></p> <p>●운수: 단 하루라도 걱정이나 근심은 접어두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금전: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되는 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큰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애정: 부부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화합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일도 순조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30일 길일, 29, 2일 주의.</p>
<p><b>닭띠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b></p> <p>●운수: 우울 안 개구리는 바깥세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려 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보세요. ●금전: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애정: 꼭 육체적으로 힘들게 해야 고문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더 큰 고문이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7, 1일 길일, 30, 3일 주의.</p>	<p><b>개띠   현실가능성을 고려해야</b></p> <p>●운수: 꿈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금방 사라질 무지개라면 곤란합니다. 먼저 현실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주먹구구식 일처리나 어설픈 임기응변은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 돈도 들어오고 살 길이 열립니다. ●애정: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듣게 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3일 길일, 30, 1일 주의.</p>	<p><b>돼지띠   타이밍이 문제</b></p> <p>●운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는 정작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금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정: 항상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한쪽은 이미 끝났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0, 3일 길일, 29, 2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 환불원정대 효과 '놀면 뭐하니?' 시청률도 고공행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엄정화, 이효리, 제시, 화사를 한 자리에 모은 '환불원정대'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 방송한 MBC TV 토요 예능 '놀면 뭐하니?' 시청률은 8.9%-11.5%로 집계되며 4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김종민과 정재형이 환불원정대의 매니저로 합류하는 에피소드가 담겼다. 환불원정대 멤버들은 두 매니저와 유쾌한 호흡을 보여줬다. 멤버들은 매니저들과 함께 추석을 기념한 사진 촬영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연예계 대표 '센 언니'들을 모아놓은 환불원정대는 이전 프로젝트인 '썩썩 프로젝트'만큼이나 화제 물의를 하고 있다.

제각기 개성이 충만하면서도 알고 보면 여린 면도 있는 언니들의 티키타카(빠르게 주고받는 대화) 호흡이 인상적이며, 그리고 무대에서는 누구보다도 프로다운 모습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다. 아직 데뷔곡을 발매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호응이라면, 본격적인 활동 후에는 '썩썩 프로젝트' 이상으로 가요계와 예능가를 동시에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간대 방송된 '불후의 명곡'은 4.8%-7.7%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토요 예능 중 SBS TV '정글의 법칙'은 6.1%-7.3%, KBS 2TV '살림

하는 남자들2'는 5.7%-6.5%로 집계됐다. MBC TV '백파더-요리를 멈추지 마'는 2.7%-4.5%, '전지적 참견 시점'은 5.0%-5.4%, '최애 엔터테인먼트'는 2.9%-4.1%였다.

JTBC '장르만 코미디'는 1.404%(이하 유료가구), '아는형님'은 6.218%를 기록했다.

lisa@yna.co.kr

# 트와이스, 11월 일본에서 싱글 7집 '베터' 발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걸그룹 트와이스가 초겨울 일본에서 7번째 싱글 음반을 발표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가 오는 11월 18일 일본에서 싱글 7집 음반 '베터'(BETTER)를 발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싱글에는 동명의 타이틀곡 '베터'와 신곡 '스콜피온'(Scorpion)을 수록한다.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이어져 있다'는 메시

지를 담았다.

소속사는 "항상 팬들과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트와이스의 진심을 담은 신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에서 정상급 인기를 누리는 트와이스는 지난 16일 발표한 일본 베스트 3집 '#TWICE3'(해시태그트와이스)로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kimhyoj@yna.co.kr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 인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말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현명한 이기주의자'로 살기...

그럭저럭, 어영부영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나를 돌아볼 시간쯤이면 훌쩍 세상 나이 예순에 가까워 있다. 곁에서 이런 분들을 여럿 보았다. 나 역시도 오십 줄에 들었으니 얼마 남지 않은 나이인 게다. 그렇다, 참으로 짧은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더욱이 그 시간을 제대로 챙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부터는 다른 이를 위한 시간이 아닌 철저히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그렇게 되겠지 하는 식의 바람은 결국 또 하나의 후회를 만들고 과거에 사로잡히게 한다. 이렇게 어리석은 삶의 반복은 후회만 남길 뿐이다.

어려서는 막연하게 느껴지던 삶이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것은 앞에는 비켜갈 수 없는 '확실한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삶을 제대로 챙기며 나 자신을 위한 시간 관리가 결국 잘 죽을 수 있는 준비는 아닐까 싶다. 과거에 사로잡혀 현실을 잊어버리는 아까운 시간과 미래에 저당잡혀 현실을 잃어버리는 시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에 후회 없는 삶이 있을까마는 후회보다는 조금의 아쉬움으로 남는 삶이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때만이 후회가 적어지는 것이다. 오늘이 결국 어제의 내일이고 내일의 오늘인 까닭이다.

가끔 삶에서 자기 자신은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이 자신 속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몇 보게 된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신의 삶의 주체는 자신인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낸다. 이것저것 해보려다 제대로 된 한 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것을 하면 나도 이것이 하고 싶고 저 사람이 저것을 하게 되면 또 나도 저것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자신에게도 불만이 생길뿐더러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리석게도 짜증만 늘기 마련이다.

이렇듯 비교하며 사는 삶은 결국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으로 현실을 외면한 채 후회로 반복된 삶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현실은 과거 속에서 후회의 그림자를 만들고 다시 또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를 살게 한다.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 우선 필요하다.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

과 부모를 챙기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만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 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나의 에너지가 다 소진된 후에 자신을 돌아보며 땅을 치고 후회에도 그것은 소용없는 냇두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늘 깨어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늘 다른 사람,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 자신의 소중한 시간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나를 챙길 수 있을 때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이유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이다. 나 자신도 나를 잘 챙기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랄까. 다른 사람 역시도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나를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철저히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우선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연습을 해 보자.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나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귀함을 받는다. 물론 자식이나 부모도 마찬가지란 생각이다. 어찌 사람뿐일까. 내 집의 강아지는 또 어떻

까. 이처럼 우리는 쉬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나를 빼어놓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진정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얘기다. 남에게 거들먹거리며 잘난 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내 마음 잘 챙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잘 챙기며 살다 보면 진정한 자기 사랑이 싹트게 되고 자라 넉넉하게 되는 것이다.

삶에서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또 있을까. 친구도 마찬가지다. 아주 특별히 똑똑하지는 않더라도 미련한 친구를 옆에 두었다고 생각해 보자. 요즘처럼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에서도 미련에는 약도 없단다. 그렇다, 조금은 서로에게 현명한 친구로 마주하면 좋을 일이다. 사실, 똑똑하다는 것도 미련하다는 것도 어찌 보면 바라보는 사람의 편견에서의 느낌일 게다. 그러니 그것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느끼고 판단해버린 나의 어리석음의 한 단면일 게다. 어찌 됐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나를 잘 챙기며' 미련하지 않은 '현명한 이기주의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경북공타령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북으로는 북악이요, 남쪽에는 남산이다. 동에는 낙산이고, 서쪽엔 인왕산이라 했다. 배산임수일 적에 한강을 끼고 있으니 명당임에 틀림없다. 서울도성이 그렇다는 말이다. 중심엔 정궁正宮인 경복궁이 있다.

경복궁 타령. 경기민요라 했다. 궁궐 중간에 동원된 백성들의 원성怨聲이 담겼다고 했다. 귀에 들리는 듯 싶다. 가사중 몇줄만 골랐다. 국어시간에 배웠는지 그건 가물 거린다.

남문 열고 파루 치니 계명산천  
밝아 온다  
을축 사월 갑자일 경복궁을 이  
록하세  
도편수 거동을 바라 먹통 들고  
서 갈광질광 한다  
...  
석수장이 거동 보소, 방망치 갈  
라잡고 눈만 꿈벅거린다.  
...  
우리나라 좋은 나무 경복궁 중  
간에 다 들어간다.  
...  
원래 경복궁은 임진왜란때 불타  
단다. 덕수궁도 창덕궁도 예외없  
이 화禍를 입었다는 거다. 그후 이

백여년간 임금은 제대로된 집무처  
가 없었다고 했다. 재원財源이 없  
으니 황폐해진 정궁을 중건할 방  
책이 없었던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다. 대원군이 나섰는데, 난  
을 쳐서 다시 지을 자금을 마련했  
다 던가. 나라가 궁핍했다 해도 너  
무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다시  
부서졌다. 이번에도 일제日帝가  
저지른 만행이었다. 그 자리에 총  
독부 건물을 덩그러니 세워버린  
거다. 그 석조 건물이야 얼마나 잘  
지은 건지 알수 없다. 하지만, 부수  
는 것도, 그 자리에 뭘 다시 세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경복궁 우측  
인 인왕산엔 호랑이가 많았단다. 겸재도 인왕산 작품을 남겼는데, 그림은 호랑이형상 마냥 으스스  
하다. 경복궁을 부순 자책을 인왕  
산 호랑이가 잡아갔다.

현대판 인왕산 작품이다. 사진  
에서 봤는데, 대작이고 걸작이다  
싶다. 그림속 인왕산 바위는 웅장  
하고, 경복궁은 오히려 조붓해 보  
인다. (같이 실린 그림은 사진을 보  
고 따라 그렸다.) 이제 인왕산은 동  
네 뒷산마냥 오르내릴 수있단다.  
더 이상 호랑이가 나오지는 않을

게다. 진작眞作은 청와대에 걸려  
있단다.

그나 저나, 벌어들이는 곳 따로  
쓰는 곳 따로 인가. 돈줄은 막혀있  
는데, 씹씹이는 큰 모양이다. 이러  
다가 탕진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  
다. 누군가 다시 난蘭을 치겠다 할  
수도 있겠다. 한국 이야기이다.

부수긴 쉬워도 다시 세우는건  
쉽지만은 않다. 달갑지 않은 경복  
궁타령이 부활하는 건 아니겠지.  
인왕산 정상頂上에서 내려다 보는  
경복궁은 어떨것인가?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  
상 6:38)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한 불안한 마음,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휴람 성형이벤트 지금 이용해보세요!  
 상담 · 예약 ·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수술 ·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보호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 휴람

상안검 or 눈썹거상술 <del>187만원</del> <b>154만원~</b>	하안검 + 지방재배치 <del>187만원</del> <b>154만원~</b>	안면거상술 +목거상 <del>880만원</del> <b>660만원~</b>			
이마 거상술 <del>495만원</del> <b>330만원~</b>	코 성형 <del>363만원</del> <b>264만원~</b>	지방이식 +PRP <del>330만원</del> <b>220만원~</b>	가슴성형 <del>660만원</del> <b>550만원~</b>	지방흡입 <b>220만원</b> ~	이물질 제거 <b>110만원</b> ~

**HURAM**  
**성형이벤트**  
 아름다움을 만드는 곳



“ 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디테일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는 디테일  
 풍부한 경험으로 올바른 개선책을 찾아내는 디테일  
 수준 높은 세포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디테일  
 안정적인 마취를 통해 더 좋은 수술결과를 이끌어내는 디테일 ”

휴람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반재성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바노바기성형외과	최성우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유성형외과	노성훈 대표원장 카톨릭의과대학 졸업 노상호성형외과	김용규 대표원장 연세대 석/박사 졸업 YK성형외과
김태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라퐼름성형외과	최원혁 대표원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 드림라인클리닉	정경인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시너지성형외과	박차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린스뷰티메디칼그룹



**김수남**  
 하의의료사업담당

**617.949.176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난청(Hearing loss)

# ‘귀가 잘 안 들려요’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의료네트워크 강남병원의 도움을 받아 난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에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6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 인구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난청 환자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청각계

인체의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뉘며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 외이도로 보내고, 고막이 진동하여 소리를 증폭시켜 이소골을 통해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 세포로 전달 시키면 청신경에서 이를 수렴하여 뇌의 청각 영역으로 보내 소리, 언어를 인지하게 된다.

### 난청의 분류

소리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전음성 난청, 청각세포에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 두 가지가 함께 있는 혼합성 난청, 그 외에도 청신경이나 뇌에 문제가 생긴 중추성 난청이 있다.

### 진찰과 검사로 원인 분석

귀내시경을 통해 외이도와 고막 상태를 확인하고, 정밀한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 유형을 분석한다. 특히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늘어나고 있다.

### 치료

전음성 난청을 일으키는 심한 귀지, 중이염 등은 약물 치료 및 수술로 치료하고, 돌발성 난청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측두골 MRI 검사를 하고 약물, 고실내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는 보청기, 골전도 임플란트, 인공와우 이식 등의 치료를 하며,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보청기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각자의 청력 상황에 맞추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양측 고도 난청의 환자에게도 인공와우 이식으로 전혀 못 들던 소리를 듣게 해줄 수가 있다.

보청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Q. 보청기는 꼭 양쪽을 해야 하나요?

양쪽 난청을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양쪽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이 나쁘면 양쪽 눈에 안경을 착용하며 정도에 따라 도수만 차이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만 착용시 효과가 반감되며,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기가 어렵고 소리의 방향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 Q. 보청기를 오래 쓰면 귀가 나빠지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나쁘면 안경을 착용하고, 안경을 쓰는 것 때문에 시력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듯, 보청기도 난청이 있으면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청기를 조기에 착용하여야 나이가 들어서도 ‘말소리 청취력(어음명료도)’ 를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 Q. 보청기를 착용하면 왕왕거리고 시끄럽다던데요?

과거의 단순소리증폭기, 구형 아날로그 보청기에서 불편감이 많아 보청기가 소용 없다는 풍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도의

기술을 탑재한 디지털 보청기, 소음감소 기능, 신제품들의 개발로 불편감이 많이 낮추었습니다.

### Q. 보청기 꺼봐야 소용없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보청기의 적응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수 시간씩 착용하고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며 적응하고, 또한 소리를 약하게 해서 지내다가 점점 소리를 키워가며 적응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시끄러운 곳에서 사용하면서 나의 청각계에 적응을 시킵니다. 적응기간인 2개월간 2-3차례 조절을 하고 이후에도 6개월에서 1년간 방문하며 청소도 하고 조절도 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인내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기에 불편하다고 책상 한 구석에 방치해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난청”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담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sup>99</sup>**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sup>99</sup>**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sup>99</sup>**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말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95) 선생님 은퇴자금과 금융회사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재정신문으로 유명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험회사 AIG가 잘못된 교사 은퇴 자금 운용으로 금융당국(SEC)과 20million으로 합의했다는 내용(AIG Unit company \$20 million to settle SEC prove of teacher-retirement business, Valic financial advisors also resolved separate fund-fees investigation, Dave Michaels & Anne Tergesen, WSJ, July 28, 2020)이다. 보험회사는 지역 교육청(Education Association)에 많은 돈을 지급하며 그대가로 선생님들의 은퇴자금을 보험회사가 설정한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종목은 당연히 선생님들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 것임이 틀림없다.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학생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학생은 월스트리트에 진출하여 많은 돈을 운영하며 부자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 각자가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산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수입은 금융기관인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겐 은퇴플랜으로 401(k)이 있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직장(Non-profit Organization)에서 일하는 학교 교사들에겐 403(b)이라는 은퇴플랜이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세금 유예를 받으면서 은퇴자금을 모으는 플랜이다.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금융회사가 적은 봉급을 받으며 학생들은 가르치는 교사들의 은퇴플랜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어느 한 작은 금융회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미국 최대 보험회사인 AIG의 자회사인 VALIC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한 언론지에 나온 기사(AIG confirm investigation of 403b annuity sales practice, Rebecca Moore, Compliance, Nov 4, 2019)와 다른 언론 매체를 요약해 본다.

금융회사가 선생님들에게 제공된 대표적인 투자상품이 어뉴이티(Annuity)이다. 어뉴이티는 한 마디로 매우 복잡한 투자상품이다. 어뉴이티를 파는 사람은 원금이 보장

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무지개처럼 말하지만, 그 속 내용은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다. 투자자에게 혜택이 있는 투자종목이라면 숨어있는 비용과 수수료(Commission) 등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종목에는 경비(Expenses)와 투자위험성이 있지만, 어뉴이티를 판매하는 사람은 수수료나 경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어뉴이티에 부과되는 경비는 3%라고 신문에서 말한다. 401(k) 은퇴플랜의 비용이 1%라고 가정하고 연수익률 6%로 25년 일한다면 선생님들의 은퇴자금이 무려 38%나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가르치며 은퇴할 때 은퇴자금으로 \$500,000을 모을 수 있지만, 2%라는 큰비용 때문에 \$310,000밖에 되지 않는다. 비용 때문에 무려 \$190,000을 손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큰돈은 선생님들의 호주머니가 아닌 은퇴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로 들어간 것이다.

Valic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Financial Advisors)는 318,000명의 고객과 투자한 자

산 \$21 billion을 운영하고 있다. Valic 회사도 \$19.9 million을 금융당국에 내기로 합의했다. 투자 경비가 높은 뮤추얼 펀드에 고객의 돈을 투자했다는 이유이다.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간 소중한 돈이다.

최대 금융회사가 아이들 교육을 맡은 선생님들의 은퇴플랜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면, 일반 투자자의 돈은 어떠한 식으로 운용할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건물이 번듯한 사무실, 오랜 역사의 금융회사, 직함도 높고 매우 친절할 금융인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수시로 언급하는 이유이다.

평균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은퇴 후에도 2, 30년은 충분히 살고 특히 여성분들은 더 오래 산다.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 오랫동안 일하며 조금씩 모은 은퇴자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숨어있는 수수료와 끊임없이 부과되는 투자 경비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이다. 학교 선생님이 일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17세 풍월주風月主 염장공廉長公(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염장공은 대저택에서 살았다. 그가 풍월주의 위를 마치고 나서 기거한 집은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당시 신라의 35채(실제 기록은 39채이다)의 금입택 중의 하나인 '수망택 水望宅' 이었다. 그는 보종공 밑에서 부제로 있을 때부터 보종의 집안 일을 돌보아 주면서 재물을 사취하였다. 그리고 선덕공주를 도와 철속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선덕의 즉위와 함께 조부調符의 영수으로 발탁되었다. 조부는 나라의 곳간이다. 영은 수장으로 장관이다. 즉 공물貢物과 부역賦役을 담당하는 재무부였다. 삼국사기, '직관지' 에는 진덕여왕5년(651년)에 영을 2인으로 둔 것으로, '신라본기' 에는 진평왕6년(584년) 3월에 조부령 1인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설치 당시에는 장관이 1인이었다가 진덕여왕 때 2인으로 증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부는 진평왕6년에 설치하여 경덕왕 때 대부大府로 개칭되었다가 혜공왕 때 환원되었다. 소속 관원은 영(1~2인), 경卿(2인), 대사大舍(2인), 사지舍知(1인)와 최하위직인 사뱃는 8~10명이었다.

염장은 조부의 영으로 있으면서 많은 재물을 김유신과 김춘추에게 공급하였다. 물론 자

신의 뒤편도 챙기는 걸 잊지 않았다. 집으로 금이 들어가는 것이 마치 홍수와 같다하여 당시 백성들이 그의 대저택을 일러 '수망택' 이라고 했는데, 화랑세기에는 그가 매우 검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진 아마 그가 모은 많은 재물을 혼자서 사용하지 않고 김유신과 김춘추 등 삼한의 통일사업을 성취할 결출한 영웅들이 배양한 군사력 증강에 한 몫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어지는 화랑세기,

[선덕이 즉위하자, 들어가 조부의 영이 되어 유신과 춘추에게 재물을 공급하여 주었고 또한 사적으로 치부를 했다. 그 때 사람들이 공의 집을 가리켜 수망택이라 했다. 금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 홍수와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세상에 공을 미생공과 비교한 바 있는데 미생은 극도로 사치를 했으나 공은 검약을 몸소 실천했으니 그 부유함이 미생공보다 훌륭했다.]

10세 풍월주 미생과 염장의 닮은 점은 둘 다 첩을 많이 두어 서자들이 많은 것과 치부를 한 것이다. 미생은 100여명이 넘는 자식들의 이름은 다 몰라도 적서의 구분없이 사랑했고 아이들의 잘못을 조금도 꾸짖지 않았다고 한다. 염장도 미생처럼 많은 낭도郎頭들의 사사로운 청탁을 들어주며 그들의 딸을 첩으로 두었기에 서자가 많았다. 그리고 둘 다 조부의 영으로 봉직하면서 많은 치부를 하였다. 미생은 평

상시에도 화장을 하며 극도의 향락함이 천자보다도 더했다는 기록과 함께 그의 사치를 본진陳나라의 사신이 상국에도 아직 이와 같은 재상이 없다고 했다. 반면에 염장은 조부의 영으로 치부한 재물이 많았지만 자신은 검소했고 대부분의 재물을 김유신과 김춘추에게 공급하여 삼한을 통일할 밑거름이 된 낭도들 양성에 쏟아부었다.

[찬하여 말한다: 몸소 검소하여 부유했고 보종공에게 충성스러웠고 칠성七星과 교류하여 힘을 다하여 찬동했다. 통일의 사업이 실로 공에게 힘입었다.]

세계: 아버지 천주공은 진흥대제의 아들이다. 그 어머니는 월화공주로 가야이녀왕의 딸이다. 곧 우리 양화공주의 딸이다. 진흥왕의 소비로 들어가 천주공을 낳았다. 커다란 도량이 있어 가야가 여러차례 추대하려 했으나 과가달라 허락 받지 못했다. 지도태후가 홀로 되어 신제新帝를 섬겼는데, 총애가 쇠하자 천주공에게 시집가서 공의 형제 3인을 낳았다. 모두 천주공의 품모를 지녔다. 모계는 용춘공전에 상세하다]

염장은 진흥왕의 손자이다. 부모는 천주공과 지도태후이다. 진흥왕은 후궁 월화와 천주를 낳으니 그가 염장의 아버지이다. 진흥왕의 아버지는 임종갈문왕이고 임종의 아버지는 지증왕이다. 염장의 친조모 월화의 부모는 대

가야이녀왕과 양화공주이다(양화는 태자 월광과 대가야의 마지막 왕 도설지 왕도 낳았다). 양화는 신라인으로 부모는 호조와 선혜부인(처음에는 소지왕의 정비였는데 중僧 묘심과 사통했다가 묘심은 주살당했고 선혜는 폐위되었다)이다. 염장의 어머니 지도태후는 진지왕의 왕비였다. 용수와 용춘을 낳은 후 진지왕은 황음무도한 죄목으로 폐위되었지만 지도는 폐위되지 않고 태후의 위에 있었다. 그 후 어린 나이에 등극한 신제新帝, 즉 조카인 진평왕을 섬겼지만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천주와 혼인하였다. 진지왕은 진흥왕의 차차이고 진평왕은 진흥왕의 장자인 동륜태자의 장남이다. 염장의 어머니 지도태후의 부모는 기오와 흥도인데 기오의 부모는 흥기와 선혜부인이다. 흥도의 부모는 영실과 옥진이며, 박영실의 부모는 수지와 보현공주(법흥왕의 누이)이다. 박영실과 옥진은 흥도 외에도 두 딸이 있는데 사도는 진흥왕의 왕비이고, 모도는 미진부와 혼인하여 미실과 10세 풍월주 미생을 낳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저, 이종욱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 NAMU •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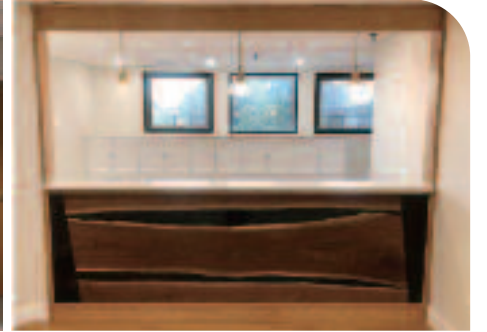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 SERVIC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 WHY NAM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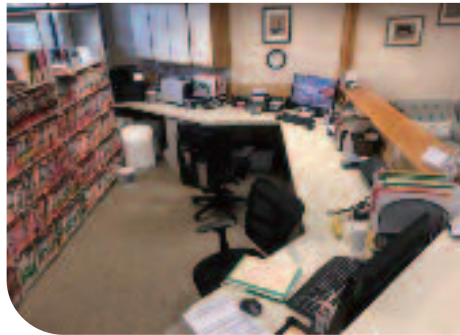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 국궁 양궁 연습

## 국궁 양궁 연습에 초대합니다

코비드 19로 위축된 우리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Open Air 로 초대 합니다.  
현재는 Session 마다 최대 5 가족만 함께 활 쏘며 기술을 배우고 연마합니다.  
서로 3 meter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활을 쏘며, 활과 화살을 사용 전후  
소독해서 사용합니다.

미리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6월 13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강습과 연습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후 2:00- 3:30, 3:30-5:00 (토1, 토2, 일1, 일2)  
원하는 Session을 예약하세요. 활과 화살을 제공하며,  
강습과 연습은 모두 무료입니다.

10분전 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예약: taewon.jin@Gmail.com, 603-205-6679  
주관: KAYP Youth program, director Taewon Jin

